**주님 승천 대축일(2018년 5월 13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까?”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한 쪽 다리가 부러지면, ‘아이고 재수도 없지’하고 생각하면 불행한 거고, ‘그래도 한 쪽만 부러져서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네’하고 생각하면 행복한 겁니다. 앞으로 넘어져서 코가 깨져서, ‘아이고, 짜증나,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지’하고 생각하면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정말 다행이다. 뒤로 넘어져서 머리 안깨져서 감사한 일이네’하고 생각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행복해보지 못해서 그런 거랍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일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마시랍니다. 그냥 오늘 지금 바로 여기서 행복하시면 됩니다. 행복하십니까?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또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복음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이 지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는 대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또 승천하신 이 사건이 진짜 일어난 일일까요? 우리는 다들 그렇게 믿습니까? 신자들이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로 사실인가요?

네, 이것은 팩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럴거라고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이 뻥치지 마쇼. 어떻게 그런일이 일어납니까.

당시,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실망과 좌절 속에서, 다 포기하고 이제 고향으로 서서히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바깥은 예수파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군인들이 있으니까 두려워서 깜깜한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숨어지냅니다. 어둠 속에서, 두렵고, 절망만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무슨 일이 있어났길래,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닫아 두었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향해 달려갔을 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한 목격과 체험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이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였고, 팩트였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두려워서 꼭꼭 숨어지내던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나와서, 그 실제 목격한 사실을 선포하고 다닙니다. 이제 두려울것이 없습니다. 죽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당장 잡혀가서 죽는다 해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부활을 봤는데...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 했는데...

무엇인가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할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다가, 그냥 허무하게 무참히 죽어버린, 그 스승님이 다시 살아 온 겁니다. 분명히 죽는 것을 봤고, 시신도 무덤에 안치를 했는데, 다시 돌아오다니... 와서, 말을 합니다. 이리 저리 만져보라고 합니다. 내가 맞다고... 그리고는 배고프다고 먹을거를 달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이런 기적을 보고 그냥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다들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참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 사실을 알려야지요.

환시나 환각 상태도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 살짝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꿈이나 환시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여러번 여러 사람한테, 여기 저기서 나타나십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삶이 바뀝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죽을때 까지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세상에 알리려고 다닙니다.

이렇게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확실하게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부활의 삶의 살기 시작합니다.

이 부활 사건의 최고 절정. 바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이어집니다. 장장 40여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날,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작은 야산으로 가더니,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축복을 빌어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시야에서 사라질때 까지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꿈이야 생시야. 이게 뭔 일이 이런 일이 다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히 눈 앞에서 사라졌을때...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 까요? 할말도 다 잃은채... 어찌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지?

그리고,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세상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세상에 외쳐댑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하늘 나라는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함께 보여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 우리들도 언젠가는 하늘에 올라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우리의 미래 운명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똑같이 사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육신의 피곤함과 고단함과, 그리고 억압받고, 소외당하는 외로운 인간의 삶을 직접 겪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미래의 운명, 미래의 영광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 승천 사건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대축일은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운명에 대한 희망과 기쁨을 함께 축하하는 대축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걱정 많고,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더라고, 우리는 모두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 받았고, 그리고 언젠가는 하늘 나라, 천상 고향으로 돌아가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참으로 기쁘고 희망적인 미래입니다.

그러니 세상 살이가 조금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늘 기뻐하고 즐거워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약속들이 오늘 이 승천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지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겠다.” 행복하고 희망찬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들이 모두 거짓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희망이 가득해 지는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하늘 나라가 종착점인 여정길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바로 우리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난 팩트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믿는데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부활이고, 승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고, 하늘로 승천하는 신앙입니다. 참으로 행복하고 대단한 신앙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 걱정마시고, 늘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